"경제회복 · 일자리 창출"

익산시, 소상공인 · 대학생 · 청년 분야별 지원사격

익산 다이로움 발행규모 확대, 경제위기 백신 등극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를 '일자리와 경제'로 정하고 분야별 정책 지원에 방아쇠를 당긴다.

먼저,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현재까지 1만58개의 업체가 신청했고 55억1,800만원이 지급되어 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의 경우 6,504개의 업체가 18억8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미신청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3,400업체에게 신청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해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530개의 업체가 지원 신청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등급 4~7등급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 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여름 방학 동안 대학생들에게 직무 체험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단기 인턴 사업과 행정체험 연수를 위한 대학생 일자리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303명을 선발할 예정인 대학생 단기 인턴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와 병행 추진하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방학 기간 동안 행정 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집 인원을 당초 4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확대 실시한다. 두 사업 모두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6주간 운영되며 단기 인턴은 파트 타임형에는 약 138만7,000원, 풀타임형은 약 262만4,000원이 지급되고, 대학생 일자리사업은 모두 풀타임형으로 약 262만4,000원이 지급된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직자와 청년사업장 지원도 본격화 한다.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은 시간제·단기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다가 코로나19로 실직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직자들을 위해 생활 안정 지원은 물론 구직활동을 촉진해 사회 진입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모두 180명을 선정하여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청년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청년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18세~39세의 청년이 대표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시는 지난 추경에 이를 확보하여 지난달 공모를 실시해 40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사업장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4개월간 시간제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직이나 급여 삭감 등을 겪는 취업 취약 계층과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기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당초 연간 100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었던 익산 다이로움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발행규모를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출시한지 5개월만에 가입자 약 59,000명, 발행액 622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계속됨에 따라 발행규모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인센티브 10% 지원 정책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탄력

주민 의견 설계에 적극 반영… 올해 말 실시 설계 완료

익산시가 지난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익산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는 구간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국가산단과 주거지 경계부인 동서로 일대 이며, 구조 고도화 시작점인 웨스턴라이프 호텔부터 센트럴파크까지 도로, 인도 및 녹지공간을 포함한 폭 60m, 왕복 1.8km 구간이다.

이 지역은 도심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도시경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위치이나, 국가산단 노후화에 따른 도심경관의 주요 저해요소로 부각되면서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2020년부터 2년간 2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산단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과 산단의 특징을 담은 문화 컨텐츠 개발, 노후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 빛과 밤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한 야간 경관 개선, 구간별 테마길 및 특화 정원 조성, 산단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쉼 공간 조성 등이다.

시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 주민대표 및 전문가로 이뤄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개최된 1차 추진 협의회를 시작으로 수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착공하여 오는 22년에 걸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기반 시설 정비와 공원 및 주차장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산단 재생사업과 인근 골목음식점 특화거리 사업에도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따라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순 경제관광국장은 "설계 단계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만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강임준(군산시장)이사장과 롯데칠성음료 이동진 주류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

롯데칠성음료, 군산 교육발전 장학금 1500만원 기탁

롯데칠성음료가 해마다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강임준(군산시장)이사장과 롯데칠성음료 이동진 주류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군산공장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내고장 사랑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현재까지 기탁한 누적금액만도 총 3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탁된 장학금은 군산 및 전북지역에서 판매된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제품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됐으며, 향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다이로움카드 혜택 연말까지 연장"

장경호 익산시의원 주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은 다이로움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20% 코로나 지원책을 연말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익산시에 주문했다.

익산지역화폐로 충전식 카드방식인 다이로움카드는 올해 1월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약 5만 여명을 넘어섰다.

다이로움카드는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익산시에서 충전금액의 5%인 25,000원, 양대 명절이 속한 달에는 10%인 5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매월 꾸준히 50만원을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면 1인당 연 35만원 정도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익산시는 한시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지원하고, 당월에 사용한 금액의 10%를 익월에 지원하여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경호 의원은 이러한 다이로움카드의 지원혜택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힘든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었으나, 재난지원금이 거의 사용되고 다이로움카드의 추가지원이 7월부터는 끝나 시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익산시에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같은 소비 촉진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한화에너지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

지역사회에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며 훈훈함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시는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공장장 박종구)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기업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기업정신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연간 4,500만원을 지원해, 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아이들과의 에너지캠프, 월명산 나무심기 활동, 소화기 보급, 김장김치 담그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에이즈 무료 · 익명 검사

익산시보건소는 에이즈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연중 무료·익명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HIV 외부 정도 평가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에이즈는 조기에 치료하면 면역기능저하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통해 체액 속의 바이러스 농도가 저하되어 타인에 대한 감염력 또한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편견은 에이즈 검사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 보건소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익명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 진단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질병관리본부의 HIV 검사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한빛자동차 공업사 '착한가게' 동참 호응

나운3동에 위치한 (유)한빛자동차 공업사가 '착한가게'에 가입해 나눔 실천에 동참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나운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홍재, 민간위원장 김종쇠)는 23일 '착한가게 나눔캠페인'에 동참한 (유)한빛자동차 공업사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한빛자동차 공업사는 지난 2012년 군산시에서 모범정비업소로 지정돼 정직과 신용으로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착한가게 나눔캠페인' 동참으로 매월 매출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주는 선행을 약속했다.

김배중 대표는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 서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